



우리는 E 부녀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셨다. 매년 한 달쯤 한국 우리집을 방문하시는데 올해는 두 달째 머물고 계신다.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어찌나 공사다망하신지 매일 쉴 틈 없는 스케줄이 놀랍기만 하고 강화도, 당진, 동해, 경주, 춘양, 울릉도, 제주 등 동해 번쩍서 번쩍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 하루에 두세 건씩 선악이 겹쳐 걸을 힘도 없다며 지친 모습으로 귀가하셨다가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서둘러 나가는 것이 20대 젊은이 저리 가라 수준이다.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으로 사람의 성격을 에너지의 방향, 정보수집, 판단과 결정, 이해양식에 따라 16가지로 분류하는데 아버지는 보나마나 확실한 외향형(Extraversion)이다. 외향형(Extraversion, E)과 내향형(Introversion, I)은 자신의 에너지의 방향을 외부로 두는지, 내부로 두는지에 따라서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고 내향적인 사람은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E와 I가 언제나 흑백처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E도 때로는 조용히 혼자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을 때가 있으며 혼자만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향적인 I도 가끔은 혼술보다 약자 지킬 회식 분위기를 즐기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사교적”이라는 말을 들어온 전형적인 외향형 E로서 되돌아보건대 혼자였던 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혼자 좋아 혼

자 떠난 한 달간의 유럽 배낭여행에서도 사실 나는 혼자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연애시절 남자 친구랑 싸웠을 때도 집에서 혼자 울기보다는 주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쪽을 선택했다. 학창 시절에는 아무리 우울해도 학교에 가서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때로는 못사람들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 연기할 필요 없어.” 라는 말도 들어봤고 고1 때쯤 ‘진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그 무언가를 숨기고 즐거운 척, 신나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리 복잡한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즐거웠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고 나면 행복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가슴이 충만해졌다.

이렇듯 나도 꽤나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인간이지만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나는 새발의 피 수준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아버지는 늘 그룹에 중심이자 리더였으며 아버지를 주축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아버지가 그 어떤 인연도 허투루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나이, 성별, 인종, 지역, 종교 상관없이 수십여 년 지켜온 인연들은 동창, 동료, 선후배, 제자, 스승 등 그 관계도 참 다양했고 경이로울 정도로 끈끈했다.

얼마 전 남편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동안 나는 야외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옆 벤치에서 경비원들 몇 명이 모여 수박을 먹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내게 다가

와 우리끼리만 먹기 미안하다며 꽤 커다란 수박 한 쪽을 건넸다. 일부러 수고스럽게 내민 수박이기도 했고 나도 조금 전 5km 러닝을 마친 터라 매우 목이 말랐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고 얼른 수박을 받아 먹었다. “수영장 앞에서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 앉아 홀로 수박을 먹고 있었지 뭐야” 하고 수영을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말했다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크게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이 글을 쓰다 말고 궁금해져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실제로 아버지는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방금 약식으로 검사를 해보니 그 결과는 역시나였다. 우리는 부전여전 E 부녀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좋은 본보기고 롤모델이기에 아버지처럼 즐거운 E로 나이들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와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집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최근 판매한 매물들

780 W Rossslynn AVE FUL	\$950,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